



키움증권
제이제이제삼차 전단채

키움증권은 투자기간이 20일 이하인 제이제이제삼차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세전 연 3.10%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이제이제삼차 전단채는 신용등급 A30(한국기업평가), 만기는 2018년 9월 30일, 연 수익률은 세전 3.10% 수준이다. 사업자는 중산대곡지역주택조합(울산 대곡 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이며, 아이에스동서(주)의 연대보증으로 신용을 보장·발행했다. /손엄지 기자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아카데미' 실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9월 과정을 오는 19일과 20일에 실시한다. 19일에는 NH투자증권 본사 아트홀(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20일에는 NH금융PLUS 삼성동금융센터(삼성역 5번 출구)에서 각각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달 '100세시대 아카데미' 강좌 주제는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종전망 및 투자유망종목'과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절세전략'이다. '100세시대 아카데미'는 강의 일자별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절세 토크콘서트' 성료

KB증권은 10일 여의도 본사 그랜드홀에서 200명의 고객을 초청해 진행한 '2018 절세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2018 절세 토크콘서트'는 6일 문을 연 'KB 기업인 세무자문센터'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KB 기업인 세무자문센터'는 일반적인 VIP자문서비스를 넘어 증권 분야에 특화하여 '기업인'과 '세무'에 집중한 전문자문서비스 제공을 표방한다.

행사는 'KB 기업인 세무자문센터' 소속 원준홍 세무사의 ▲ 상속, 증여를 활용한 부동산 절세전략을 시작으로 한아름 세무사의 ▲ 거액주식보유자(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왕현정 세무사의 ▲ 2019년 절세 해안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들로 구성됐다. /김문호 기자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

외국인도 군침 흘리는 증시 3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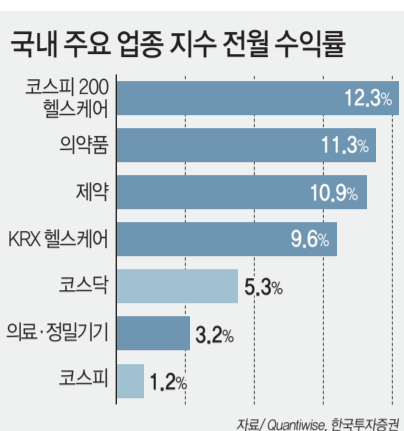
영향력 커... 관련 투자비중 늘려야
바이오·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은 상위
반도체 성장세, 2020년까지 견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반도체, 콘텐츠, 제약·바이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 업종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크다.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인 신라젠(425억6800만원), 에이치엘비(391억5300만원) 등 바이오 주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회계 감리 문제로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데 대해 '저가매수'의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해당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우창 NH투자증권 QV클럽 과장은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세계 1위 수준이고, 중국·인도의 영향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많아 한국에게 유리한 산업이다"고 평가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임상 실험 중인 기업도 다수다. 현재 신라젠, 바이로메드, 에이치엘비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엔지켐생명과학 역시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건강식품 '톡피드'와 똑같은 물질에 대해 미국 임상을 진행 중이다.

오병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에는 한미약품을 통해 한국기업들도 임상 초기 물질을 라이선싱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고, 2017년에는 셀트리온을 통해 직접 의약품을 개발해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면서 "향후 글로벌 임상이 성공하는 기업이나오면 국내 제약바이오주의 세 번째 대세 상승 구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역시 호황 사이클 고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의 매출 성장세는 2020년까지 견조하

게 이어진다는 업계 평가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2369억6100만원)가 압도적이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0년 46조48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2017년(30조1090억원) 대비 54.39% 증가세다. 삼성전자 역시 2020년 매출은 251조7500억원으로 2017년(239조5700억원)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AI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여전하다. 중국 기업 이노트론은 2018년 상반기 19나노급 기술로 모바일 디램(DRAM)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도 못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칭화유니그룹의 YMTC 역시 4분기부터 낸드플래시 시험 생산이 이뤄지거나 초기 생산 제품은 32나노 MLC(Multi Level Cell) 제품으로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4년 양산 체제를 가동한 기술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의 기술적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2019년까지도 중국이 국내 메모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세계 상위로 평가받는다.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들의 동남아 국가별 Top 10 콘텐츠를 살펴보면 4개는 로컬 콘텐츠, 나머지 6개는 해외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해외 콘텐츠 6개 중 4개가 한국 드라마다.

넷플릭스(Netflix) 역시 해외진출을 위해 한국 콘텐츠를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제작비 대비 약 50~60%의 판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제작비 대비 판권료 비율은 80%에 이른다. 미스터 션샤인의 제작비는 430억원 수준이다.

이호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구매하기 시작한 초기 목적은 동남아 시장만을 타겟으로 했다면 (현재의 판권료는) 불가능한 금액이다"면서 "한국 콘텐츠를 통해 타겟하는 시장이 비(非)아시아권 국가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승 NH투자증권 QV클럽 대리는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의 업종별 상대수익률이 거의 모든 업종에서 부진한 가운데서도 제약 바이오 반도체 미디어 등 3개 업종이 선방했다"며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이들 업종에 강점을 가지고 투자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coul.co.kr

삼성증권 "손보사 손해율 악화... 보수적 접근을"

경쟁 심화·계절 비수기 영향 등
추가적 요율 인상 불가피 전망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손해율의 악화 국면이 이어질 것이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장호선 연구원은 11일 "업종 내 누적된 자보 경쟁 심화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3분기 자보 손해율이 악화할 것"이라며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2016년 말 이후 손보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른 자보 기본료 인하와 할인특약 경쟁 격화로 보험료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증가와 집중호우에 따른 치량 침수 피해에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자보 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로 8월 기준 대형사들은 80% 중후반대, 중소형사들은 90%를 상회하는 자보 손해율을 기록한 것으

로 보도되고 있다"며 "자보 손해율 안정화를 가정하더라도 3분기 손보사 손해율은 평균 80% 중반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자보요율 인상/인하 내역〉

시기	내용	요율 변화(%)
2013년	수입차 자차보험료 인상	평균 10.0
2014년 상반기	기본요율 인상(11개 손보사 기준)	평균 3.5
2016년	기본요율 인상(11개 손보사 기준)	평균 4.7
2016년 9월	외제차/고가차 보험료 인상	평균 3~15
2016년 12월	삼성화재 기본요율 인하	평균 -2.7
2017년 3월	메리츠화재 개인용 인하	-0.8
2017년 6월	메리츠화재 개인용 인하	-0.7
2017년 8월	삼성, 현대, DB, 한화, KB 개인용 인하	평균 -1.4

[자료=삼성증권]

로 보도되고 있다"며 "자보 손해율 안정화를 가정하더라도 3분기 손보사 손해율은 평균 80% 중반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7%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또 "시장에서는 손보사들이 10월 중 자보요율 인상을 계획함에 따라 자보 손해율 악화 국면이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손보사 자보특약 전수

조사와 보험사들의 고통분담 언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자보요율 인상은 원가 상승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추가적인 요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손해율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손보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kmh@



'별내자이엘라' 일러스트. /포에드원

소형 아파트값 상승세
'주거용 오피스텔' 눈길

최근 소형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 상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구조가 소형아파트와 흡사한데다 가격 경쟁력도 갖춰 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은평뉴타운 엘크루' 전용 59㎡는 3억72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입주 한 달 후인 지난해 3월 이 타입의 평균 매매가(약 3억2000만원)를 감안하면 1년 5개월 새 5200만원(16%)이 났 셈이다. 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가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2개 등 소형아파트와 비슷하다.

지난해 6월 분양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힐스테이트 미사역' 전용 84㎡도 지난달 5억663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5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이 단지 역시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등 소형아파트 구조와 비슷하게 이뤄져 있다. 그러나 가격은 인근 전용 59㎡ 소형아파트보다 최고 8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의 전용 59㎡이하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315만원으로 지난 1년(2017년 8월~2018년 8월) 동안 무려 18.05% 가량 상승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LH, 오늘부터 행복주택 4537가구 청약접수

시세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

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8개 지구 4537가구를 청약접수한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5만3000원

에서 최대 33만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내에서 상호교환 가능하다.

실례로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청년층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원, 월 임대료 14만9000원 수준이나 최대 전환 시 5084만원, 6만4000원 수준이다. 행복주택은 만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독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

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성남고등 등 수도권 4곳 2970가구 및 아산탕정 등 비수도권 4곳 1567가구에 LH 청약센터나 모바일(LH 청약센터)을 통해 청약신청하면 된다. /이규성 기자 peace@